

덕혼 멀롯, 미운오리새끼서 백조로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56〉 덕혼 빈야드

“개성없는 와인을 분류할 때 거의 빠지지 않는 전형이지...난 절대로 싸구려 와인은 못 참아.”

영화 ‘사이드웨이’에서 와인애호가 마일즈가 포도품종 멀롯(Melot)을 겨냥해 한 말이다. 우리말 자막으로는 ‘싸구려’로 쓰였지만 영화에서 실제 대사에서 쓰인 단어는 멀롯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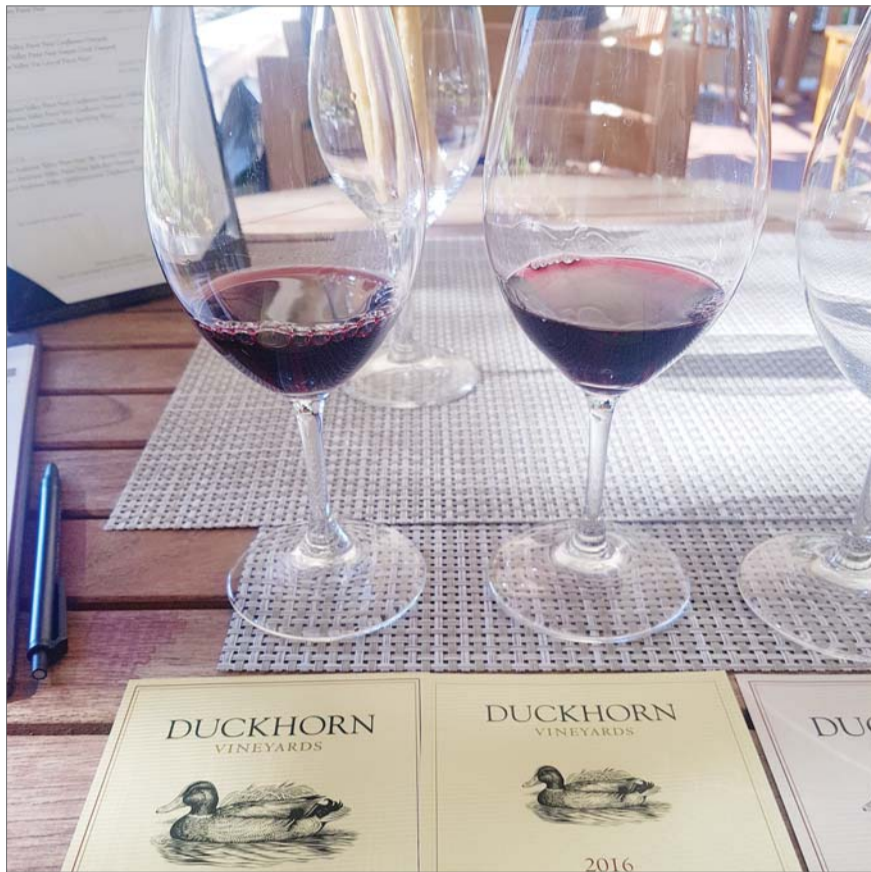
사실 멀롯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역할을 더 많이 해왔다. 단단한 카베네 소비뇽에 부드러운 질감을 더하는 정도다. 프랑스 보르도에서 일부 최상급 와인이 멀롯을 주로 썼지만 드문 경우고, 특히 미국 등 신세계에서는 마일즈의 말처럼 더 박한 평가를 받았다.

이런 멀롯의 위상을 바꿔놓은 곳이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와이너리 덕혼 빈야드다.

덕혼 빈야드는 설립 초기인 1978년부터 멀롯을 주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었다. 설립자 댄과 마가렛 부부가 와이너리를 세운 것도 프랑스 보르도를 여행하며 와인의 매력에 푹 빠졌기 때문이지만 특히 생페리리옹과 보르도를 지역의 주 품종인 멀롯 와인에 깊이 매료되면서다. 덕혼 빈야드의 멀롯은 보르도를 특유의 벨벳과 같은 질감과 함께 나파밸리 토양의 응집력이 더해지면서 신세계 멀롯 와인의 기준점이 됐다.

‘덕혼 쓰리 팜즈 빈야드 멀롯’은 미국 최초의 싱글 빈야드 멀롯이다. 세 그루의 야자수(Three Palms)가 있다는 포도밭 이름처럼 따뜻한 경사지에 위치해 과실 풍미가 풍부하고, 복합미와 농축미, 미네랄리티까지 갖췄다.

시음했던 2016 빈티지는 멀롯의 비중이 93%에 달했다. 코에서는 검붉은



(왼쪽부터)덕혼 나파 벨리 멀롯 아틀라스 피크 2016, 덕혼 쓰리 팜즈 빈야드 멀롯 2016. /안상미 기자

과실과 시나몬은 물론 코코아와 달콤한 오크향 등이 복합적으로 느껴졌다. 입 안에서는 탄탄하고 매끄러운 탄닌, 오크 풍미가 복합적인 향과 어우러져 길게 이어졌다.

2014 빈티지는 지난 2017년 와인 스펙테이터가 선정한 100대 와인 가운데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와인 스펙테이터가 100대 와인을 발표한 이후로 멀롯을 주 품종으로 한 와인이 1위를 차지한 것을 덕혼이 두 번째일 정도로 흔치 않은 일이다.

와인 스펙테이터는 “멀롯은 캘리포니아에서 카베네 소비뇽이나 피노누아와 같은 위상을 가지지 못했지만 제대로 만들면 환상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덕혼 나파 벨리 멀롯’은 쓰리 팜즈 빈야드에서 재배한 포도를 20% 이상 사용해 탄탄한 구조와 깊이 있는 풍미가 특징이다. 멀롯의 비중이 80% 안팎이며, 카베네 소비뇽과 말벵, 뽀피 베르도 등을 섞어 만든다.

와이너리를 방문한 날 시음할 수 있

었던 ‘덕혼 아틀라스 피크 나파벨리 멀롯 2016’은 멀롯으로만 만든다. 나파벨리의 고지대인 아틀라스 피크에서 재배된 포도를 사용해 복합미와 구조감이 도드라지며, 장기숙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덕혼 빈야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비뇽 블랑이다. 소비뇽 블랑 역시 우아하고 매혹적인 화이트 와인을 목표로 와이너리 설립 초창기인 1982년부터 생산됐다. 지난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오찬 와인으로 ‘덕혼 나파벨리 소비뇽 블랑’이 선정되며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덕혼 나파벨리 소비뇽 블랑 2018’은 소비뇽 블랑에 세미옹을 섞어 만들었다. 생동감 있게 톡톡 튀는 느낌의 감귤류와 열대과일의 향을 같이 느낄 수 있다. 첫 인상은 신선하지만 과실의 풍미에 단단한 미네랄이 더해져 깊이 있고 풍부한 맛이다. /smahn1@metroseoul.co.kr



자료 협조

편리미엄 패션템 입고 설 명절연휴 즐겨볼까

〈편의+프리미엄〉

BYC, 4방향 신축성 ‘보디히트’ 아이디어, 방수 우수한 부츠 선택

2020년 명절을 앞두고 여행 계획이 세우는 이들이 많다. 패션·뷰티업계는 짧은 연휴 여행객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줄 아이템들을 선보였다. 겨울철 어디서든 활용하기 좋은 발열 라이프웨어와 외부 활동 시 건조함을 해결해줄 쿠션 파운데이션, 보온과 방수가 뛰어난 부츠까지 다양한 여행 아이템을 소개한다.

BYC는 짧은 연휴 여행 시 활동이 편하고 활용도 높은 발열 라이프웨어 보디히트를 선보였다. 보디히트는 보온 기능이 우수하며 얇고 가벼워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데일리 아이템으로 적합하며 4방향 신축성이 우수하고, 몸에 부드럽게 감겨 장기간 비행이나 실외 활동시 편안하다. 실내 라운지웨어 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레저, 잠옷으로도 입을 수 있어 여러 벌의 보디히트만으로 여행 시 짐을 최소화 하고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다.



보디히트

/BYC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디어가 보온성과 방수성을 강화한 겨울 계절용 캐주얼 겨울 부츠를 출시했다. 아이디어 ‘메이즈 부츠’는 슬림한 스타일의 세련된 남녀 공용 로우컷 방한 부츠다. 방수 지퍼가 달린 끈이 없는 단화 형태로 신고 벗기 편하다. 생활방수가 가능한 립스탑 원단에 촘촘하게 퀵팅 라인을 넣어 깔꿈하고 포말한 느낌을 강조했다. 내피와 발바닥 인솔 부분에 사용된 플리스 원단은 보온성을 극대화해 발을 따뜻하게 감싸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은은한 광채·커버로 럭셔리 메이크업 완성

LG생활건강 숨37*

LG생활건강은 자연·발효 뷰티 브랜드 ‘숨37’ (이하 숨)에서 절정의 피부 빛을 완성하는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인 ‘로시크숨마 쉬어 커버 메탈쿠션, 골든 피니싱 팩트(사진)’를 출시하며 럭셔리 색조 화장품의 라인업을 견고히 했다.

‘숨’은 지난 해 11월, 로시크숨마 골든 베이스와 쉬어 커버 파운데이션을 출시하며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빛나는 광채 피부를 위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이어 2020년, 숨의 첫 제품으로 광채와 커버력을 오랫동안 지속시켜주는 메탈 쿠션과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주는 피니싱 팩트를 선보인 것.

‘로시크숨마 쉬어 커버 메탈쿠션’은 뛰어난 밀착력으로 멍침이나 들뜸 현



상 없이 피부 잡티를 균일하게 커버해 준다. 로시크숨마 스킨케어 제품에 함유된 주요 성분을 담아 절정의 빛을 선사하는 이 제품은 쫄쫄한 영양감으로 피부가 차오르는 느낌을 선사하고 인체적용시험

을 통해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피부 광채와 커버력을 입증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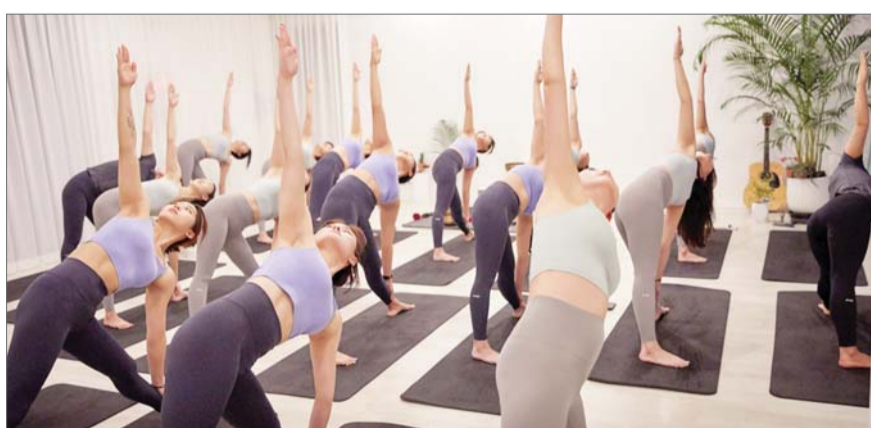
‘로시크숨마 골든 피니싱 팩트’는 베이스 메이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피부에 가볍게 터치하면 섬세하게 밀착돼 매끄러운 벨벳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준다. /신원선 기자

서울드래곤시티 레스토랑 ‘무슬림 프렌들리’ 인증

호텔플렉스 서울드래곤시티가 한국관광공사의 ‘무슬림 프렌들리’ 레스토랑 인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서울드래곤시티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중동지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할랄 메뉴를 개발, 한국관광공사에서 2016년에 도입한 무슬림 식당 친화등급제에서 ‘무슬림 프렌들리’ 레스토랑 인증을 통과했다. 호텔의 대표 레스토랑 ▲푸드 익스체인지 ▲인스타일 ▲알라메종 와인 앤 다인 ▲더리본 등 총 4개 업장에서 다양한 할랄 푸드를 선보이며 중동지역 관광객의 입맛 공략에 나섰다.

서울드래곤시티는 할랄인증식재료로 인도, 모로코식 등 전통 방식의 할랄 푸드는 물론, 불고기 양념과 같이 한식이 더해진 이색 할랄 푸드도 함께 선보인다. /박인용 기자



안다르 요가 클래스 수업.

/안다르

안다르 요가클래스 성료... 애슬레저 선도

애슬레저 리딩 브랜드 안다르가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요가 클래스에 정원 대비 약 5배 이상의 신청자가 몰리는 등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안다르는 지난 12월 5일부터 30일까지 성수동 ‘요가웨이브’에서 요가 클래스를 진행했다. 아크로요가, 하타요

가, 매트필라테스 등 다양한 테마의 요가 클래스를 15개 오픈해 참여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클래스 당 10명 내외의 소수 정예로 진행되는 안다르 클래스는 총 292명의 참여인원으로 진행됐으며, 노쇼비율이 5% 미만으로 집계되는 등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양상을 보였다. /신원선 기자

유통 단신

락앤락

뚜껑까지 투명한 밀폐용기

락앤락이 보관 중인 식재료 확인이 한층 손쉬운 유리용기 ‘뚜껑까지 투명한 밀폐용기(사진)’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락앤락 ‘뚜껑까지 투명한 밀폐용기’는 내열유리 소재의 몸체에, 유리처럼 투명하지만 잘 깨지지 않고 가벼운 트라이탄을 뚜껑에 적용해 유리 용기의 특징점을 강화한 제품이다. 기존의 불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뚜껑과 달리 위에서도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고, 전면이 투명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도 준다.

동원F&B

팽수 참치캔 ‘남극펭귄참치’

동원F&B는 오는 16일 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팽수 컬래버 참치캔 ‘남극펭귄참치(사진)’ 패키지 한정판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남극참치 패키지는 남극참치 5캔과 팽수 캐릭터가 그려진 ‘팽수참치’ 1종으로 구성됐다. ‘팽수참치’는 팽수의 귀여운 표정과 팽수의 재치 있는 어록이 담긴 총 15종의 디자인 제품으로 구성됐다. 알록달록한 색감과 앙증맞은 디자인으로 재미를 더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